



〈사진 왼쪽부터〉 1996 창립 1주년 기념식, 2005 운문사스님 장기기증희망등록, 2007 육군 훈련소 장병 장기기증희망등록, 2013 만해 대상 수상, 2013 생명나눔 인사동 캠페인

“장기기증 문화 더 확산돼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생명나눔에 관심 가져준 이들과 후원자, 기증자들의 공력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 역시 20년을 맞게 됐습니다. 한분 한분이 다 소중한 고마운 마음입니다”

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일면 스님(사진). 스님은 “생명나눔운동은 초대이사장 법장 스님이 일구어 놓은 토대 위에서 발전해가고 있다”며 “법장 스님의 원력을 되새기며 항상 후원자분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소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십 년 가까이 생명나눔운동을 해오면서 여러 인연들을 만났다. 그중 뇌사시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가족들을 겨우 설득한 끝에 7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나간 젊은 청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는 스님은 그를 위해 49재를 지내주기도 했다.

전국을 무대로 장기기증 운동의 필요성을 홍보하다 보니 이제는 사찰 캠페인 활동을 나가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모르는 불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식이 확대됐다. 정부에서도 자문을 구할 정도로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뇌사자 장기기증 비율 국민 10명당 1명 수준, 8명에 달하는 미국에 견줄려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일면 스님은 “뇌사자 1명이 9명을 살릴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면 스님은 2000년 간이식 수술을 받은 장애인이다.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하던 중 우연찮게 이식수술을 받게 됐다. 새 삶을 살게 된 스님은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매일 되새기며 살고 있다”며 “생명나눔문화가 널리 확산돼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표

- 1994년 생명공양실천회 창립(초대 본부장 법장 스님)
- 1995년 대구 가스폭발사고 중경상자 헌혈 캠페인 장기기증자를 위한 제1회 천도제 생명나눔실천회로 개명, 사단법인 설립허가
- 1996년 백혈병 환자 성덕바우만 살리기 운동 전개
- 1997년 골수기증운동본부 단체장 대국민 성명서 발표
- 2002년 국민헌장 목련장 수훈(이사장) 보건복지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선정
- 2003년 생명나눔실천본부로 명칭 변경 소아암 환자 위한 모금음악회
- 2005년 4대 이사장 일면 스님 취임
- 2006년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창립
- 2008년 제1회 생명나눔걷기대회
- 2009년 제1회 한다솜희망음악회
- 2010년 안국역 장기기증 희망안내소 개소
- 2011년 자살예방센터 개원 KBS 특별 생방송 ‘생명을 나눔시다’ 캠페인
- 2012년 KBS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 2013년 제17회 만해 대상 수상

4만여 약사여래 못 생명 평화 발원



생명나눔실천본부 20년 발자취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로 설립 20년을 맞았다. 불교 자비사상에 바탕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해온 전법의 길이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그동안 장기기증희망등록 4만여 명, 조혈모세포희망등록 3만여 명을 모집하고 7백여 명의 환자들에게 약 27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해왔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출범하면서 일궈낸 교계내의 변화를 짚어본다.

생명나눔운동 불교계 뿌리내려

1994년 3월 27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전신인 생명공양실천회가 서울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불교계에 생명나눔운동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처음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창립 전부터 서암 조계종 중정 예하를 비롯, 360여 명의 스님과 불자가 장기기증 동참의사를 밝혔을 만큼 불교계에서 장기기증운동은 이미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창립된 것은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을 충족시키고 불교 자비사상을 실천으로 구체화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었다.

생명공양실천회는 우선 헌혈사업과 장기기증운동 홍보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1994년 5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사, 도선사, 용주사, 수덕사, 금산사 등 전국 주요 사찰에서 대대적으로 헌혈운동을 펼쳤다. 이듬해인 5월 대구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헌혈캠페인을 따로 시행해 475장의 헌혈증서를 대구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불교 사회적 위상도 높아

1995년 생명공양실천본부는 일반인들에게 거부

감이 들지 않도록 단체 이름을 생명나눔실천회로 바꾸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다. 1996년에는 이웃종교 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펼치며 골수기증운동본부도 창립했다. 이는 백혈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골수기증운동을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됐다.

또한 1998년에는 IMF 구제금융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연간 혈액 수입액을 줄이기 위한 헌혈캠페인을 100일 동안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나라 연간 혈액 수입액은 약 480억원에 달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살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자’를 모토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찰이 아닌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7명에게 각 3백장씩, 총 2천1백장의 헌혈증을 전달하기도 했다.

신 장례문화 선도

1999년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생명나눔실천회는 새로운 연중 캠페인을 구상하게 된다. 불교식 장례법인 화장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꾀한 것이다. 유교사상이 뿌리깊은 사회 풍토상 매장이 아닌 화장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치부되던 시기였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서울, 인천, 울산, 김천, 충남, 광주 등 전국 사찰을 다니며 불자들에게 화장문화 홍보에 주력했다.

1999년 4월에는 행사 교육을 마친 예비 수행자 239명이 화장 서약에 동참했고 외국인 스님 41명, 태고종 행사교육원에서도 121명이 동참하는 등 스님들 참여가 줄을 이었다.

스님들이 솔선수범하자 불자들의 인식에도 변화

가 일기 시작했다. 전국불청대회에서는 불자 224명이 화장유언 서약에 참가하는 등 총 25회에 걸쳐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화장 서약에 동참한 이들은 6천2백명에 달했다.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한 수도 250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1년에는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나서 주요 선진국의 장묘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하고 장례문화개선 사업 일환으로 생명의 숲 조성사업을 실시, 서울 구로구 고척2동 부지를 할애받아 ‘나의 나무 가꾸기’를 진행했다.

캠페인은 화장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깨트리며 장례문화를 개선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1994년 창립... 헌혈운동·장기기증 주력

생명존중 알리고 장례문화 개선

‘불교 사회화’ 모범사례 꼽혀

원로스님 및 박원순 시장 등 기증 서약

출가 지도자들의 실천 이끌어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이끌었던 이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스님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인간관계 불사신 생명공양은 이웃과 삶을 나누는 자비행이자 불교적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구체적 실천수행”이라고 항상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전국 단위로 진행된 캠페인도 마다않고 현장을 찾아가 “육신은 허망하며 버리고 가는 것이니 집착할 것이 없다”고 불자들을 향해 진정한 보살행을 권고했다.

2011년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으로 한 나눔을 강조하며 장기기증 서약에 먼저 동참했다. 2010년 전국선원수좌회에서 폐년

나이, 장기기증은 독실한 불자였던 최 씨의 뜻에 따라 가족들이 동의하면서 이루어졌다.

1억원 1995년 신장이식 판정을 받은 고승원 씨는 신장 기증자를 찾지 못하다 생명나눔과 인연을 맺고 2010년 신장 이식술을 받게 됐다. 건강을 회복하자 10년 넘게 저축한 1억원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했다.

선원정규에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지만 스님들 사이에 장기기증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먼저 솔선수범을 보인 것이다.

또한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동국대 석림회 스님과 동국대 교직원 및 학생 1백여명에게 장기기증을 권해 생명나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타 스님은 “금생에 여러 상을 받았지만 이 훈장이야말로 가장 명예로운 영광”이라고 말했다.

격려하고 나누고...생명존중 사상 고취

2000년에는 전국민 1인 1장기기증운동을 실시, 캠페인 범위를 스님과 불자에서 국민으로 넓혔다. 홍보대사가 위촉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가수 김홍국씨가 첫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탤런트 전광렬, 영화배우 장동건 씨가 연이어 홍보대사로 나섰다. 장동건씨는 이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팬들에게 이를 수시로 알리고 책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면서 생명나눔활동을 사회에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녔다. 전국 축제 현장은 물론 지하철역, 군부대, 대학, 고등학교, 길거리 등에서 캠페인을 추진했다. 지금도 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의 80%가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다.

한다솜희망음악회와 희망걷기대회 역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국가 복지의 빈 곳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며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통계로 보는 생명나눔

1994년 8월 3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설립 이후 첫 장기기증 사례 등록. 고(故) 김치언 씨가 신장과 안구기증을 한 이후 장기기증 운동이 급물살을 탔다. 본부 설립 1년 만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이들이 1천3백여명에 달했다.

9907km 재미교포 불자인 정옥련 씨가 1995년 3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대한민국 서울까지 9907km를 날아와 신장을 기증했다.

23세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최순미 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6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을 당시

43,170명 본부 설립 20년 누적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

12 100명 이상에게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추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이들. 대한불교삼론종 스님들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동화사 미수 스님,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등 모두 12명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20주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창립 20주년 행사 안내

- ◆ 날 짜 :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 ◆ 시 간 : PM 4:00 ~ PM 6:00
- ◆ 장 소 : 하림각 AW컨벤션센터
- ◆ 특별 후원 : 농협 053-01-271485 (예금주 : 생명나눔실천본부)

16시부터 BBS라디오 생방송이 진행되오니 반드시 20분 전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